

## 『仙遊洞記』의 서사 구조와 북벌 비판의 층위에 대한 연구\*

이 강 석\*\*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의 층위 |
| 2. 인물과 공간 설정의 의미 | 1) 빈약한 근거와 정치적 변질   |
| 1) 인물 설정에 담긴 의도  | 2) 강고한 화이관으로의 귀착    |
| 2) '仙遊洞'의 공간적 함의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 국문초록

작자 미상의 『仙遊洞記』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면서, 北伐 담론에 대한 첨예한 비판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사 양식의 변화 과정을 입증하고, 북벌 담론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와 시대적 위상을 밝혔지만, 작품 자체의 메시지, 즉 북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그 층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 이 논문은 한국문화회에서 주최한 2019년도 한국문화회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고에 대한 질의와 제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북벌 담론은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와 어설픈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제출되었다. 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한 이 담론은, 반박할 수 없는 定論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족들의 강고한 화이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 『선유동기』에서는 북벌의 준비와 계획에 관여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허위를 다각도로 들춰낸다. 그것은 사족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사유였던 까닭에, 現實과 仙界를 넘나드는 ‘선유동’이라는 공간 설정을 통해 은폐된다. 이는 『허생고사』 계열 다른 작품의 북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선유동기』는 당시의 사회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기 시작한 북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가장 깊숙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선유동기(仙遊洞記)』, 『허생고사(許生故事)』, 북벌(北伐), 선유동(仙遊洞), 화이관(華夷觀)

## 1. 머리말

『仙遊洞記』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현재 연세대 귀중본 서가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 말미의 필사기를 토대로 특정된 유력한 창작연대는 1748년(英祖 24)으로,<sup>1)</sup> 북학파의 연행이 활발했던 18세기 후반과 멀지 않은 시기이다.<sup>2)</sup> 이 작품은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며, 致富와 北伐에

1)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 연구』 47, 한국어문학회, 2006, 46쪽. “작품의 말미에 “歲崇禎紀後己卯, 松軒散人 徐宗記 我聖上即位後戊辰元月日凡拙齋書.”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 여기 기묘년은 1699년에 해당하며, 무진년은 1748년 아니면 1808년으로 상정된다. 만약 필사시기가 1748년이라면 『선유동기』는 연암의 『허생전』보다 앞서 성립된 작품이 되는 것이다.”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벌을 침예한 시각으로 비판한 燕巖朴趾源(1737-1805)이 쓴 『許生傳』과의 거리 또한 비근한 작품이라 하겠다.

정환국(2006)은 이 작품을 서사 양식의 변화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목하는 한편, 북벌에 대한 인식의 추이 속에서 그 의의를 읽어 내고자 하였다.<sup>3)</sup>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를 검토하고, 의의를 밝혀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선유동기』만큼 ‘북벌불가론’을 확실하고 전일하게 묘사한 작품도 없었다<sup>4)</sup>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북벌에 대한 비판의 층위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점은 다소 아쉽다.<sup>5)</sup>

북벌 담론은 ‘(北으로 표상된) 청나라를 정벌한다’라는 표면적 의미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와 어설픈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제출된 이 담론은, 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반박할 수 없는 定論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족들의 강고한 화이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 연행이 활발해지고, 직접 청나라의 실체를 목도함에 따라 이런 분위기에 自省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족들은 청나라가 夷狄화된 공간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선유동기』는 북벌의 준비와 계획에 관여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북

2) 창작연대의 추정과 관련된 문제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선유동기』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에 재론하도록 한다.

3) 정환국, 앞의 논문, 37-38쪽. “『선유동기』는 다른 허생고사류가 한문단편 서사임에 비해, 전통적인 소설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량과 편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측면은 허생고사의 연변 양상의 최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선유동기』는 조선후기 이념화의 한 축이었던 북벌론을 서사화한 ‘담론의 서사’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선유동기』는 조선후기 서사양식의 연변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실례인 것이다.”

4) 위의 논문, 54쪽.

5) 그런 점에서 『선유동기』의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을, ‘시의성’의 측면에서만 주목했던 ‘줄고, 『북벌 담론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 석사 논문, 2019.’에서의 부분적 논의 역시 북벌 담론 비판의 층위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별 담론의 허위를 다각도로 들춰내는 한편, 북벌의 상징적 인물인 尤庵 宋時烈(1607-1689)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李厚源(1598-1660)을 내세워 북벌 주도층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감행한다. 이는 사족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협한 사유인 까닭에, 現實과 仙界를 넘나드는 ‘선유동’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폐된다. 『선유동기』의 이러한 북벌 비판은 『허생고사』 계열 다른 작품의 북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선유동기』에서 다른 북벌에 대한 비판의 층위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선유동기』에 드러난 서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핀 다음, 핵심 사안인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비판의 층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인물과 공간 설정의 의미

『仙遊洞記』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永曆 연간(1647-1661), 西江 근처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許讓은 오직 독서만 하는 선비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이 ‘三不可之事’(無資身·不保身·無糊口之資)를 내세워 허양을 몰아세우자, 그는 그 길로 富商大賈 許同知를 찾아가 돈을 빌린다. 허양은 빌린 돈을 탕진하며 세월을 보냈지만, 知人之感이 있는 허동지는 끝까지 돈을 대준다. 결국 단 한 번의 상행위로 줄부가 된 허양은 빌린 돈을 갚고, 小民들에게 시혜한 뒤 별당에 은거한다.

그렇게 치부담이 끝난 뒤, 북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무렵 효종은 북벌을 위해 李厚源에게 그 준비를 일임한다. 이후원은 인재 발탁을 위해 허동지의 조언으로 허양을 소개받지만, 허양은 ‘北伐三策’을 진술한 뒤 종적을 감춘다. 이에 이후원은 직접 인물을 물색하고자 義州府

尹을 자천한다.

의주에서 인재 물색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이후원은 자신을 찾아온 金昌錫이라는 인물에게 이끌려 仙遊洞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절치부 심하며 복수를 노리던 인물들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들은 명나라 유민과의 결탁을 위해 직접 중원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도중에 만난 皇朝의 遺臣들로부터 北伐 不可論을 듣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형세를 살폈으나 오히려 더욱 번성한 청나라의 모습만 확인하고는 결국 북벌을 포기했다며, 북벌의 중단을 요청한다. 조정으로 돌아온 이후원은 선유동에서 겪은 일의 전말을 보고했고, 효종이 마침내 북벌을 중단함으로써 작품은 마무리된다.

#### 1) 인물 설정에 담긴 의도

작품의 경계가 말해주듯, 『선유동기』의 서사 구조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는 여느 작품과 다르다. 우선 치부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연암의 『허생전』에는 富를 축적하는 과정이 상세하면서도 광범위하게 그려진다. 그 과정을 통해 축적된 富는 群盜를 구제하고, (윤리적) 무역과 (이타적) 분배를 통해 施惠하는 데 활용된다. 다른 작품에서도 ‘북벌’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언정 치부담은 핵심 화소로 다뤄진다. 그러나 40면 8,000여자에 달하는 『선유동기』에서 치부담의 분량은 10면 안팎이다. 또 부의 축적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대폭 축소되었고, 치부 이후 행적은 小民들에게 시혜했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매듭지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선유동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물과 공간 설정의 문체는 『선유동기』의 주제의식이 표출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먼저 인물 설정에 있어 주목할 지점은 주인공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부담에서는 ‘許讓’으로, 북벌을 다룬 후반부에서는 李厚源으로 주인공이 바뀐다. 또 선유동에서의 서사가 시작되는 대목에서는 오래전부터 북벌을 준비한 선유동 인물

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간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쑤—하지 않은 주인공 설정이 작품의 내적 인과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주장<sup>6)</sup>은 경청할 만하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선유동기』는 선계에서 벌어지는 북벌 담론의 비판에 무게를 둔 작품이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단일한 주인공이 아닌, 북벌을 계획·준비하며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던 다수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벌을 향한 비판의 강도와 준거의 신뢰성은 더욱 확고해진다. 그런 점에서 서사 전개 시점의 다변화는 단지 작품의 짜임새를 해치는 요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벌에 대한 비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또한 마땅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왜 이후원인가?’이다.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 중에서 북벌을 다루는 경우는 대개 李滄(1602-1674)을 내세운다. 이완은 효종이 계획했던 북벌의 실무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인물이니, 그의 등장은 의문을 품을 만한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이후원의 경우는 그런 접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黃景源(1709-1787)의 『明陪臣傳』에 실린, 북벌 준비의 일환으로 전함 200여 척을 건조했다는 짤막한 증언이 관련 기록의 전부라 할 수 있다.<sup>7)</sup> 17-18세기 초 조선의 수군에 배속된 선박이 60여 척<sup>8)</sup>이었으니 200척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 이러한 정황을 교차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황경원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유동기』에서 이후원을 등장시킨 이유는 송시열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원은 沙溪 金長生(1548-1631)에게 수

6) 정환국, 앞의 논문, 48쪽.

7) 黃景源, 『明陪臣傳』, 『江漢集』: 『韓國文集叢刊』a225, 94쪽. “王欲伐清, 乃使厚源治舟師, 厚源別得關艦二百餘艘, 請發御史, 比年大閱.”

8)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대동문화연구원, 2011, 27쪽.

학하였고, 同門인 송준길과 송시열의 정계 진출을 독려했다. 송시열과 북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북벌을 비판하는 『선유동기』에 이후원을 등장시킨 것은 나름 적합한 인물 선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벌의 化身으로 추앙받는 송시열과 긴밀했던 이후원을 서사 전면에서 드러낸 것은 『선유동기』가 취한 서사적 전략이었다.

송시열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위해 이후원을 거론한 것은 1659년(顯宗 즉위년) 영남 남인이었던 木齋 洪汝河(1620-1674)가 올린 應旨上疏<sup>9)</sup>에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는 1658년(孝宗 10)에 내려진 求言教旨에 응한 것으로, 時事를 광범위하게 지적한 것이다. 흥여하는 혼란한 정국의 원인으로 우의정 이후원을 지목했고, 당시 銓曹의 人選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이조판서 송시열을 공박했다. 이후원과 송시열이 모두 언급되었지만, 상소가 실린 『顯宗實錄』 기사의 말미에도 밝혀져 있듯 흥여하의 비판은 기실 송시열을 겨냥하고 있었다.<sup>10)</sup>

이 사건으로 흥여하는 송시열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연 인물로 인식되었다.<sup>11)</sup> 이후 남인은 1680년(肅宗 6) 庚申大黜陟으로 실각했으나, 서인을 향한 남인의 攻斥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桐巢漫錄』은 대표적인 남인 계열의 당론서이자, 저자인 南夏正(1678-1751)이 서인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에 대한 서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남하정이 지목한 대표적 서인 인사가 바로 송시열이었다.<sup>12)</sup> 남하정은 송시열의 북벌론에 대해 실제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sup>13)</sup>이라며 비평했다. 흥여하가 집권 서인을 공박하는 데에 있어 時事를 언급했던

9) 『顯宗實錄』 즉위년(1659) 6월 2일(5).

10) 『顯宗實錄』 같은 기사. “從因時議, 力攻汝河意在侵詆宋時烈, 上以爲汝河陰隱猜險之疏, 不可以求言, 而改書上之, 命止之.”

11) 우인수,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29-34쪽.

12) 원재린, 『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桐巢漫錄』과 『朝野信筆』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3, 한국사상사학회, 2016.

13) 南夏正 著·원재린 譯, 『桐巢漫錄』, 혜안, 2017, 209쪽.

반면, 남하정은 송시열의 북벌론을 비판의 재료로 삼았던 것이다.

종합해보면, 『선유동기』에서 이완이 아닌 이후원을 선택한 이유는 송시열과 동문수학했던 점과 정치적 후원 관계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당대 정치적 역학 관계의 일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송시열의 북벌 담론과 그 정치적 변질에 관계되는 지점으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 2) ‘仙遊洞’의 공간적 함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선유동’이라는 공간에 관한 문제이다. 북벌을 위한 인재를 구하라는 효종의 특명을 받은 이후원은 의주부윤을 자처한다. 의주로 부임한 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정도로,<sup>14)</sup> 이후원은公務를 팽개친 채 오직 인재의 물색에만 열을 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金昌錫이라는 인물이 찾아와 이후원을 선유동으로 데려가면서 본격적인 후반부의 북벌 서사가 시작된다. 이후원을 찾아온 김창석이 가까운 곳에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sup>15)</sup> 선유동은 의주 근방의 某處로 설정된 듯하다.

몇 리쯤을 가자, 넓은 들이 펼쳐졌다. 배산임수에 흙은 기름지고 물산은 풍성하였다. 그 안에 떠 집들로 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층층 난간과 꽃 계단에는 온갖 화초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뜰의 소나무엔 백학이 앉았고 연못에는 오리 떼가 헤엄을 치며, 산에는 원숭이가 객을 보고 소리치고 앵무새와 공작은 푸른 바위 사이에서 교대로 우니, 진실로 이른바 하늘이 내려준 선경으로 별유천지비인간이었다.<sup>16)</sup>

14) 『仙遊洞記』, “誤決訟事, 民怨四起, 境內鼓動, 眞所謂歌聲高處怨聲.”

15) 『仙遊洞記』, “金昌錫曰: “此去不遠之地, 有人才多聚之處, 願與相公偕往, 求見如何?””

16) 『仙遊洞記』, “至數里許, 則開一大野, 背山臨流, 土沃物豐, 隱然茅屋, 遽作一村. 層欄花階, 百花鏡發, 白鶴棲于庭松, 白鵝一群, 游泳池塘, 山猿吠客, 鸚[鸚]武孔雀, 交啼於翠屏之間, 眞所謂天賜仙境, 別有天地非人間也.”

‘선유동’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세계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이상적인 세계에서 당대의 현안에 대한 담론이 펼쳐지는 아이러니컬한 구성’이라는 평가로<sup>17)</sup> 직결된다. 하지만 ‘선유동’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와 서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필 여지가 있다. 작품에서 명명된 의주 근방의 모체가 아닌, 실제 ‘선유동’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유동은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에 걸쳐 있는 大耶山을 기준으로 內仙遊·外仙遊로 나뉜다. 일찍이 孤雲 崔致遠(857-미상)이 은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선유동에 대한 관심은, 退溪 李滉(1501-1570)을 거쳐 송시열과 그의 제자인 寒水齋 權尙夏(1641-1721), 그리고 農巖 金昌協(1651-1708)등 걸출한 문사들의 방문과 유람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그 선경에 대해 찬미해 마지않았는데, 송시열조차 華陽九曲의 아홉 번째인 ‘葩谷(巴串)’보다 선유동의 勝景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sup>18)</sup> 그 관심이 범범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심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왜란 당시 의병 활동으로 익히 알려진 重峯 趙憲(1544-1592)은 전란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미 피난처로 선유동을 염두에 두었다. 1592년(宣祖 25) 4월, 전란이 발발하자 조헌은 母夫人을 선유동으로 피난시켰다.<sup>19)</sup> 중요한 것은, 이는 조헌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土亭 李之蔭(1517-1578)에게 수학한 동문들과의 토론을 거친 판단이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피난처’로서 선유동의 적합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보였다는 점이다.<sup>20)</sup>

17) 정한국, 앞의 논문, 43쪽.

18) 宋時烈, 『仙遊洞』,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114쪽. “巴谷勝於此, 此評恐未公. 幽深兼洒落, 還憶石塘翁.”

19) 趙憲, 『年譜』, 『附錄』, 『重峰集』: 『韓國文集叢刊』a054, 458쪽. “[奉母夫人, 避于清州東面] 是月辛卯, 日本清正·調信·行長·玄蘇·秀嘉·隆景·義智等大舉入寇, 二十日下陸, 攻陷釜山·東萊, 列邑望風瓦解. 先生遂奉母夫人, 避入于清州東面仙遊洞而還.”

20) 조헌을 비롯한 토정의 제자들이 보였던 피난처로서의 선유동에 대한 인식과 그

요컨대, 선유동의 수려한 ‘경관’에 집중되었던 시선과 ‘피난처’로서의 선유동에 대한 관심이 병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관심은 이 시점 이후에 보이는 문학작품 속 선유동의 모습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피난지, 험한 절벽과 장애물로 가로막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띠며 허구적으로 증폭되고 추상화되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sup>21)</sup>

하지만 이러한 사정도 『선유동기』의 ‘공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한다. 『선유동기』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선유동의 이미지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교묘하게 겹쳐 서술하면서, 그 지역은 현실과 전혀 다른 곳인 義州의 某處로 설정했다. 게다가 현실의 ‘선유동’에 부여된 ‘피난처’라는 속성에서 나아가, 북벌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른바 북벌의 ‘전초기지’라는 의미까지 함께 부여된다. 현실과 선계를 넘나들며 복합적 의미가 부여된 『선유동기』의 이러한 공간 설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그 단서는 『허생전』 後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듯하다. 『허생전』 후지는 두 버전이 존재하는데,<sup>22)</sup> 이들은 허생의 정체와 이야기의 출처 은폐를 유도하는 연암의 수사적 책략이라 여겨진다.<sup>23)</sup> 특히 첫 번째 후지

---

적합성을 논의하는 과정은 ‘황인덕, 『임란기 전승업과 師友들의 피난지 모색활동과 학연성』, 『인문학연구』 104,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1) 위의 논문, 312쪽.

22) 다만 두 번째 후지는 통행본인 박영철본(朴榮喆本)에는 없고, 일재본(一齋本)·옥류산장본(玉溜山莊本)·녹천산장본(綠天山莊本)에만 있다.

23) 강명관,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2017, 27-32쪽. 연암이 이야기의 출처 은폐를 위해 구사한 장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허생전』이 실린 『玉匣夜話』는 혹은 필사본에 따라 『進德齋夜話』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玉匣’은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進德齋’는 역관들이 숙소로 삼은 장소가 아니었다. 또한 연암은 『虎叱』과 같이 비판적 시각이 강력하게 투영된 작품이 중국의 한 식당에 걸려있던 것이라며 둘러대기도 했다. 이러한 (의도적) 착오와 불명료함은 이야기 출처 은폐를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는 명나라 유민들이 조선으로 넘어왔음을 먼저 이야기하며 허생의 성이 허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시작된다.<sup>24)</sup> 이어서는 세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며, 갑자기 慶尙監司 趙啓遠(1592-1670)의 이야기를 꺼낸다. 요는 조계원이 경북 청송 어름에서 만난 두 승려에게 곤욕을 치르며 깊은 산중으로 끌려갔다는 것이다.<sup>25)</sup> 조계원이 치른 곤욕은 북벌에 대한 직접적 비판과 상관되는바, 이 장면은 『허생전』의 연장선에서 끊임없이 북벌을 거듭 비판하는 것이었다. 훗날 조계원은 송시열로부터 이들이 명나라 충병관일지도 모르며, 孫承宗(1563-1638) 휘하의 장수들인 듯 싶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후지가 끝난다.<sup>26)</sup>

명나라 유민들이 조선에 넘어와 있다는 언급과 함께 조계원이 만난 승려들을 명나라 충병관(혹은 장수)으로 추측하는 송시열의 지적은 피난처이자 북벌의 전초기지로 표상된 선유동을 상상하게 한다. 명나라 유민을 내세워 대명의리에 입각한 북벌의 허상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비판의 출처를 은폐했던 것은, 現實과 仙界가 錯綜된 선유동이라는 상상 공간을 통해 이야기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든 방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게다가 『허생전』과 『선유동기』의 북벌 삼대책에서는 명나라 유민의 포섭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두 작품 간 문학적 수사의 유사성은 일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하겠다.

『선유동기』에서는 북벌의 계획과 준비에 직접 관여했던 이들의 발언을 통해 그 불가능성을 날낱이 드러내고, 명분만을 내세우는 북벌 주도층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북벌 담론의 허위와 주도세력의 모순된 작태를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허생고사』에서 출발한 어느

24) 朴趾源, 『玉匣夜話』, 『熱河日記』, 『燕巖集』: 『韓國文集叢刊』a252, 305c쪽. “或曰: “此皇明遺民也.” 崇禎甲申後多來居者, 生或者其人, 則亦未必其姓許也.”

25) 朴趾源, 같은 곳. “世傳趙判書啓遠爲慶尙監司, 巡到青松, 路左有二僧相枕而臥 … 僧罵曰: “汝平居, 衆中常大言, 身被堅執銳當先鋒, 爲大明復讐雪恥, 今行數里, 一步十喘, 五步三憩, 尙能馳遼薊之野乎?”

26) 朴趾源, 같은 곳. “後趙公問于尤庵宋先生, 先生曰: “此似是明末總兵官也.””

작품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북벌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유동기』 역시 북벌 비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사유를 은폐하기 위해 그것이 펼쳐지는 장소를 ‘선유동’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간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선유동기』의 서사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인물 및 공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물 설정은 정치적 역학 관계의 일면을 염두에 둔 것이고, ‘선유동’이라는 공간 설정은 이야기의 출처 은폐를 위해 이중적·복합적 의미를 투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층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의 층위

#### 1) 빈약한 근거와 정치적 변질

마침내 李汲을 비롯한 선유동의 인물들을 마주한 이후원은, 그동안의 내막을 듣게 된다. 그들은 십대 초반부터 복수설치를 혈맹한 사이라고 한다.<sup>27)</sup> 몇 년 뒤 청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중원으로 들어간 그들은 幽州에서 명나라 조신을 지낸 ‘亡國의 大夫’를 만난다. 그는 선유동 인물들에게 지금의 형세가 螳螂拒輻에 불과하다며 만류한다. 자신들도 원수를 갚고자 지금까지 절치부심하였으나 ‘天運’이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28)</sup>

선유동의 인물들은 그 말에 수긍하는 한편,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江淮를 건너 南屏山에 도착한 일행은 한 동자의 안내를 받아 한 茅屋으로 인도된다. 여기에서 驪州刺史와 皇朝의 公

27) 『仙遊洞記』, “其時, 吾輩十兒, 共爲作黨, 憤心滿腹, 奴[怒]氣塞胸, 然而年少稚兒, 何能爲之? 血淚濕襟, 無可奈何. 十兒共咋脂, 作誓血書于城石.”

28) 『仙遊洞記』, “(…)然天運所關, 奈何奈何?”

卿을 지낸 노인을 만난다. 그 역시 ‘天運論’을 근거로, 북벌의 불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파한다.

아, 여러분은 정말 대장부의 일을 하고 계시오. 죽어도 변치 않을 충국의 마음이 가슴 속에 꼭 차 나라의 치욕을 씻고자 이 만리 밖에서 고초를 마다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부럽지 않겠소? 나는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소. 그러나 천운이 저 만주 오랑캐에게 왕성하니 이를 어찌하겠소? 옛사람들의 말에도 ‘먼저 천운을 얻는 것이요, 그 다음이 지리이며, 다시 인심을 얻은 후에야 대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빈말이 아니오. 제군들은 아직 젊은 남자들로 기이한 술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덕과 힘을 헤아리지 않고 천명을 가볍게 여기나 보구려. 심사숙고하기를! 천명이 돌아가면 사람이 이를 뺏기는 어려운 일, 자고로 제왕은 이 천명을 얻은 후에야 흥할 수 있었소. 부디 하늘을 업신여기지 마시오.<sup>29)</sup>

노인 역시 한때 豫讓의 마음을 지니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던[挾比塗廨, 效豫讓之心] 인물이다. 그는 선유동의 인물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천운이 이미 오랑캐에게 넘어간 상황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선결 조건은 ‘天運(天命)’이며, 그것은 결코 人力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업신여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대목에서는 선유동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북수설치의 뜻을 품었던 노인의 입을 통해, 북벌의 불가능성이 서술되고 있다. 이급을 비롯한 선유동 인물들은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조선으로 발길을 돌린다. 망국의 대부와 남병산의 노인은 공통적으로 ‘天運(天命)’을 언급하면서 북벌 담론의 불가능성을 피력한다. 이러한 발언은 어설론 전제 조건에서 배태된 북벌 담

29) 『仙遊洞記』, “嗚呼, 諸公眞大丈夫之事也. 滿腸丹忠, 至死不易, 欲爲國家雪恥, 勞苦於萬里之外, 豈不美哉, 豈(不)羨哉! 不勝羞愧耳. 雖然, 天運旺於金胡, 爲之奈何? 古人云, ‘先得天運, 次得地理, 又得人心, 然後將成大事.’ 此非虛言也. 諸君年少男子, 雖有奇術, 不以度德量力, 輕忽天命耶? 深思深思焉! 天命所歸, 人能難奪, 自古帝王之興亡, 得天命然後有所歸焉, 幸勿以謾天也.”

론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부터 북벌은 실행방안에 있어 군신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북벌 주도세력의 정세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0)</sup> 1654년(孝宗 5), 閔鼎重(1628-1692)은 宋浚吉(1606-1672)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대 조발 요구를 위한 淸使 韓巨源의 파견을 청나라의 위세가 기울기 시작한 조짐으로 판단했다.<sup>31)</sup> 그러나 명나라가 국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조선에게 북종의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sup>32)</sup> 조발 요구를 핑계 삼아 정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3)</sup> 하지만 민정중이 편지의 끝에, 한거원의 파견이 나선정벌을 위한 조총병의 파견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는 바<sup>34)</sup>, 청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판단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훗날 조선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발언에 전제된 명나라의 부흥 역시, 정밀한 판

30) 북벌 주도세력의 정세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논문, 80-81쪽’ 참고.

31) 閔鼎重, 『上同春宋先生(浚吉○甲午)』, 『老峯集』: 『韓國文集叢刊』a129, 124쪽. “我國之阻絕中朝, 已過一紀, 固不知天下之勢果如何也. 然自數年以來, 月犯昴宿者三矣, 夷虜自相戕殺者再矣, 傳言天兵已復山西者三矣. 虜人之疲殘凋零, 歲異而月不同者, 又往來使臣之所目見而口談也. 仰觀天象, 既如彼, 俯察形勢, 又如彼. 矧乎中國有必伸之理, 夷狄無百年之命, 則亡胡復漢之運, 其不在斯歟? 其不在斯歟, 由是觀之, 今日北差之蒼黃急迫者, 安知夫父老之牛酒已迎於西郊, 而僞賊奪魄, 復思北遁之計哉?”

32) 閔鼎重, 같은 곳. “嗚呼! 我國之屈於夷虜, 既非本心, 而我國之所畏而不敢動者, 只是此虜在耳, 今此虜之勢已蹙, 則無復可畏矣. 何乃助兵犯順, 要禍求害, 味義理之正, 喪厥初之心哉? 一朝天兵盡殲醜類, 驅其餘孽, 直臨我境, 遣一行人, 奉咫尺書, 悉問前後之罪, 欲責我國君臣, 則未知朝廷上下其將拒天子之命乎? 順天子之命乎? 拒命則陷大辟, 順命則無以爲吾君地. 思之及此, 心膽墜地. 當此之時, 爲臣子者, 雖千百其身, 亦將何補於忠孝哉?”

33) 閔鼎重, 같은 곳. “爲今日計, 速宜因其請兵之端, 廣選精銳之卒, 特遣信將, 鎮乎遼東舊境, 大發國內之民, 守諸灣上, 以張聲勢. 急送一价, 奉表天朝, 以暴本心, 以請軍期, 前後挾擊, 斬首擒生, 則虜人之命, 當在吾手中矣.”

34) 閔鼎重, 같은 곳. “昨日作得此書, 今聞虜人請兵, 專爲協攻寧古叛種云, 與愚者所料相左矣. 然虜情叵測, 不可推知, 而寧古乃吾關北相接處, 部落最盛, 識者虜之久矣. 實恐國家之禍反速, 而向日嶺東關北三尺赤雪尤可慮也. 此書仍付呈, 欲望諸丈理會及此, 覽後裂去勿留.”

단에 의한 예측이라 보기는 힘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의 사족들은 복수설치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sup>35)</sup> 민정중과 같은 류의 인식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었다.<sup>36)</sup> 그들은 수시로 ‘오랑캐 10년 가는 운수는 없다’<sup>37)</sup> 말을 되뇌며 時運에 기대어, 소극적이거나 청나라의 종식과 명나라의 부흥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시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期必한다는 점에서, 선유동의 인물들과 조우한 중원의 인물들이 제시했던 ‘天運(天命)’과 어의상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북벌 주도세력들은 효종이 말한바 ‘오랑캐가 중원의 문물을 배우면 저절로 쇠약해진다’<sup>38)</sup>는 명제를 떠받들며, 청나라의 국운이 쇠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어설피 북벌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

35) 『肅宗實錄』 30년(1704) 1월 10일(1).

36) 강명관, 앞의 책, 409쪽. “李夏坤(1677-1724)은 1723년(景宗 3) 徐命均(1680-1745)이 進賀使의 副使로 북경에 파견될 때 기념으로 써준 글에서 청나라가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청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몽고가 중국을 차지하면 조선을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漢族이 대륙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조선이 명나라를 배신한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두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대개 민정중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 허태용, 『조선 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15쪽. “崔奎瑞(1642-1704)가 1695년(肅宗 21)에 연행하는 洪受疇(1642-1704)에게 天運의 변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사정을 잘 살피라고 부탁하였던 것은 사실 이런 기대의 표출이었던 셈이고, 1706년(肅宗 32) 李箕洪(1641-1708)이 재발굴된 명나라의 대통력을 감회어린 심정으로 대하면서 ‘白首眞人’의 출현을 포기하지 못한 것도, 비록 회고적 감상이지만 변화된 상황에서조차 기존 관념을 포기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의 또 다른 소극적 표현이었던 셈이다.”

37) 『漢書』94, 『列傳』64, 『匈奴傳』, “至孝宣之世, 承武帝奮擊之威, 直匈奴百年之運, 因其壞亂幾亡之厄, 權時施宜, 覆以威德, 然後單于稽首臣服, 遣子入侍, 三世稱藩, 賓於漢庭.”

38) 宋時烈, 『惺對說話』,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16, 138쪽. “上因喟然曰: ”今日之所欲言者, 當今大事也. 彼虜有必亡之勢. 前汗時兄弟甚蕃, 今則漸漸消耗, 前汗時人才甚多, 今則皆是庸惡者, 前汗時專尙武事, 今則武事漸廢, 頗效中國之事. 此正卿前日所誦朱子謂虜得中原人, 教以中國制度, 虜漸衰微者也.”

을 뿐이었다.

빈약한 근거에서 출발한 북벌 담론은 명확한 실천적 방향성을 가질 수 없었다.<sup>39)</sup> 효종은 송시열과의 독대에서 정예병을 길러 기습하는 전략을 내세워 북벌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sup>40)</sup> 돌아온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송시열은 오히려 국가가 처할 위기를 거론하며 효종을 압박하기까지 했다.<sup>41)</sup> 송시열이 생각하는 북벌이란<sup>42)</sup> 臥薪嘗膽의 의지를 굳게 하되, 조공을 바치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등 굴욕적 事大를 인내하며 청나라의 盛衰를 살피자는 것<sup>43)</sup>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현실을 감내하고 힘을

- 39) 黃景源이 金亮行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종이 민정중과 이완 등 측근의 인물들과 북벌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음을 들어 북벌의 실패를 회고하는 장면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黃景源, 『與金參議書』, 『江漢集』: 『韓國文集叢刊』a224, 134쪽. “然謀臣畫策各殊, 有欲從鳳皇山而入遼東者, 文忠公閱鼎重議也; 有欲從鼉磯島而入山東者, 貞翼公李浣議也. 鼎重之議曰: “奴兒所置甲軍於瀋陽, 不過千人, 於寧遠不過四十人. 若率萬兵擣關外, 則遼廣斷可定矣.” 浣之議曰: “選十萬卒, 十年教養, 由大海西襲登州, 則功可十八九成矣. 請爲王率師前驅” 故孝廟之所以汲汲治兵者有年矣, 惜乎! 大計未之成也!”
- 40) 宋時烈, 앞의 책, 같은 곳. “群臣皆欲予勿治兵事, 而予固不聽者. 天時人事, 不知何日是好機會來時. 故欲養精砲十萬, 愛恤如子, 皆爲敢死之卒, 然後俟其有釁, 出其不意, 直抵關外. 則中原義士豪傑, 豈無響應者? 蓋直抵關外, 有不甚難者. 虜不事武備, 遼瀋千里, 了無操弓騎馬者, 似當如入無人之境矣. 且以天意揣之, 我國歲幣, 虜皆置之遼瀋, 天意似欲使還爲我用. 而我國被虜人, 不知其幾萬, 亦豈無內應者耶? 今日事, 惟患其不爲而已, 不患其難成.”
- 41) 宋時烈, 같은 곳. “聖意如此, 非但我東, 實天下萬世之幸. 然諸葛亮尙不能有成, 乃曰: ‘難平者事.’ 萬一蹉跌, 有覆亡之禍則奈何?”
- 42) 송시열이 제기한 북벌론과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 25-27쪽’ 참고.
- 43) 宋時烈, 『己丑封事』,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187쪽. “然於今日, 不量時勢, 輕絕強虜, 讎怨未報而禍敗先至, 則亦非先王忍恥屈己, 以延宗祀之本意也. 伏願殿下, 堅定於心曰: ‘此虜者君父之大讎, 矢不忍共戴一天.’ 蓄憾積怨, 忍痛含冤, 卑辭之中, 忿怒愈蘊, 金幣之中, 薪膽愈切, 樞機之密, 鬼神莫窺, 志氣之堅, 賁, 育莫奪. 期以五年七年, 以至於十年二十年而不解, 視吾力之強弱, 觀彼勢之盛衰. 則縱未能提戈問罪, 掃清中原, 以報我神宗皇帝罔極之恩, 猶或有閉關絕約, 正名明理, 以守吾義之便矣. 假使成敗利鈍, 不可逆睹, 然吾於君臣父子之間, 既已無憾, 則其賢於屈辱而苟存, 不亦遠乎?”

기르며, 대명의리의 수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송시열이 1680년(肅宗 6) 庚申換局으로 정계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력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삼가 생각건대 天叙·天秩은 君臣과 父子가 가장 큰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天經이요, 地義요, 民彝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몸을 바르게 하고 집을 다스린 것도 이것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버린다면 인류가 禽獸가 되고 중국이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箕子朝鮮 때부터 이미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 왔으므로, 高麗에 이르러서도 오랑캐인 元의 풍속에 다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sup>44)</sup>

이 주치의 논리는 주희의 북벌론에서 추출한 것이다. 주희가 살았던 南宋은 ‘靖康의 變’을 겪은 이후, 금나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희는 君臣과 父子 간의 忠孝 윤리를 가져와, 복수의 당위성을 보편 윤리로 확장시킴으로써<sup>45)</sup> 主戰論을 반박 불가능한 담론으로 위치 지으려 했다. 문제는 송시열이 주희의 화이관만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데에 있다. 송시열 역시 ‘天叙’와 ‘天秩’이라는 보편 윤리를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전론의 입장에 선 주희의 북벌론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희의 논리를 차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송시열의 주장은 반박 불가능한 담론이 되었다.

44) 宋時烈, 『進修堂奏劄』,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391쪽. “伏以天敘天秩, 惟君臣父子爲大, 是所謂天之經地之義民之彝者也. 自古帝王所以正己齊家者在此, 所以持綱絜維者在此. 苟或捨此, 則人類入於禽獸, 中國淪於夷狄, 可不懼哉? 惟我東方, 自箕子以來, 已爲禮義之邦, 而至於勝國, 胡風猶未盡變矣.”

45) 朱熹 著·朱杰人 外編, 『朱子全書』 24, 上海古籍出版社, 2002, 3618쪽. “君臣父子之大倫, 天之經, 地之義, 而所謂民彝也. 故臣之於君, 子之於父, 生則敬養之, 沒則哀送之. 所以致其忠孝之誠者, 無所不用其極, 而非虛加之也, 以爲不如是, 則無以盡乎吾心云爾. 然則其有君父不幸, 而罹於橫逆之故, 則夫爲臣子者, 所以痛憤怨疾, 而求爲之必報其讎者, 其志豈有窮哉!”

少論 계열의 滄溪 林泳(1649-1696)이 청나라를 사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지만,<sup>46)</sup> 노론의 적통을 자처한 韓元震(1682-1751)은 孟子가 華夷의 극명한 차이를 변론했음을 들어 극력 비판했다.<sup>47)</sup> 또 한원진은 少論 계열의 南九萬(1629-1711)과 趙泰億(1675-1728)이 ‘虜’가 아닌 ‘淸國’, ‘皇帝’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점을 극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sup>48)</sup> 이러한 상황은 송시열이 제시한 북벌 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강고한 화이관은 상대 정파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당시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망국의 대부와 남병산의 노인이 운운한 ‘天運(天命)’ 역시 보편 윤리로서, 송시열이 제기한 ‘天叙’와 ‘天秩’과 같은 층위에서 발화된 것이다. 그러나 ‘天叙’와 ‘天秩’은 어떠한 실제적 근거도 없는 발언인 반면, 『선유동기』에서 제기된 북벌 불가론은 과거 복수설치의 뜻을 품었던 ‘현지의 인

46) 林泳, 『讀書筭錄·孟子』, 『滄溪集』: 『韓國文集叢刊』a159, 492쪽. “然則今日之義, 惟當以文王治岐爲準的, 修德行仁, 自家及國, 大得民心, 維新舊命, 則小國七年, 大國五年, 必爲政於天下矣. 若不務此, 而坐談大義則空言而已. 若不法此, 而只求小康則亦苟而已, 皆非聖賢隨時之大用也, 此又一義也.”

47) 韓元震, 『雜識·外篇』下, 『南塘集』: 『韓國文集叢刊』a202, 321쪽. “孟子之時, 周之天命已去. 當時中國之君, 有能行王者, 皆可以王矣, 此孟子所以見齊梁之君而勸行王道也. 至於夷狄, 則華夷之分自截, 又與中國之僭王不同. 其不可行於中國, 本不係於中國, 天命之改不改也. 故孟子以兼夷狄, 并之於驅猛獸抑洪水, 而又痛斥陳相之變於夷, 則孟子雖見齊梁之君, 亦豈肯見夷狄之君長而勸行王道乎? 太王文王之事狄, 亦只以皮幣珠玉賂遺之, 以弭其侵凌之患, 豈稱臣奉貢, 如後世之爲哉! 且使獯鬻夷吞滅諸夏, 廢逐天子而自帝之, 則大王文王又豈肯事之而不攘斥乎? 此等議論, 直是毀冠裂冕也, 而經學自名者, 乃言之以爲當然, 爲流俗倡而漸染氣習, 義理日晦, 豈吾東將復淪於夷狄而然耶”

48) 韓元震, 같은 곳. “南九萬文集, 其稱虜人, 必曰淸國曰皇帝, 不忍斥言以虜. 壬寅康熙之死, 趙奉億輩爲虜主成服, 取用公府錢財, 書其簿曰: ‘康熙皇帝成服時用下, 乙巳臺官論啓’, 上以語逼君上寢其事. 朱子未嘗稱虜爲金國, 其稱金則必曰金虜, 又未嘗加以皇帝之稱, 尤翁與俞市南書, 論秉筆事曰: ‘改作淸人處尤未安, 大行王必稱虜, 未嘗稱淸, 今乃如此, 有所不敢, 亦有所不忍.’ 大行卽孝廟也. 九萬輩非不知此而必如彼者, 蓋不以朱子之訓聖祖之事, 爲必可法也. 小人之無忌憚, 此亦可見矣. 朱子獨於朱奉使行狀, 言充大金軍前通問使, 此因奉使官銜而書之, 非自稱也.”

물'들이 내린 판단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선유동기』는 객관적 근거를 내장한 북벌 불가론을 통해, 막연한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 2) 강고한 화이관으로의 귀착

두 차례의 전란과 굴욕적인 항복의 기억에서 배태된 청나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일방적인 무시와 폄하로 연결되었다. 청나라의 다채로운 문물을 관찰하고 배우려 했던<sup>49)</sup> 朴齊家(1750-1805)의 연행 기록이, 오히려 조선에 알려져 봤자 화만 돋우는 단서가 될 것이라 여겼던 연암의 인식은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중국을 오랑캐가 점유한 땅이라며 최악시했던 분위기는 청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의 발로였고, 그것은 강고한 화이관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하지만 호란 이후 50여 년 동안 지속된 두 나라 사이의 긴장 관계는 청나라의 국가 기반이 안정을 찾음에 따라 완화되어 갔다. 18세기의 활발한 연행을 통해 그 실체를 마주한 조선의 사족들은 견문과 감상을 연행록에 담아냈다. 그들이 목도한 청나라는 완비된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조였으며,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던 오랑캐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는 18세기 중엽 북학파의 연쇄적 연행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醫山問答』에서 華夷의 구분을 부정한 담헌과 『熱河日記』 곳곳에서 명분에 불과한 대명의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연암의 반응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마침내 정치적으로 변질된 북벌 담론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직접 청나라의 실체와 마주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즈음의 분위기는 『선유동기』에서도 포착 가능하다. 선유동의 인물들은

49) 朴齊家 著·안대회 譯,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32쪽. “自農蠶畜牧城郭宮室舟車, 以至瓦簞筆尺之制, 莫不目數而心較. 目有所未至, 則必問焉, 心有所未諳, 則必學焉.”

북벌 불가론에 대한 이야기를 두 차례 듣고 조선으로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이들은 다시 중원으로 들어간다. 차마 꺾지 못했던 복수에 대한 의지와 이제는 시운이 옮겨오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리라. 허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10년 전의 상황과 차이가 없었다.<sup>50)</sup>

우리 열 사람은 비록 布衣寒士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항상 왕실에 두고 한 조각 붉은 마음 죽어도 변치 않을 것이나, 時運이 이러하니 영웅의 힘을 쓸 데가 없게 되었구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sup>51)</sup>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현실 앞에, 선유동의 인물들은 時運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복수설치에 대한 뜻은 죽어도 변함이 없지만, 人力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시운 앞에 무기력해진 신세가 한심하다며 자탄한다. 북벌의 불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기에, 저들이 오랑캐라는 이유만으로 체제의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막연한 희망은 이제 유효할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이 이후원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이런 상황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충고였다.

왜 공연히 三公의 자리에 올라 아무 때나 전하에게 북벌의 의지를 부추기고 있는가? 그래서 중원의 환모래 사장에서 장정들이 다치게 하고, 神州의 구렁에다 곡식을 허비한단 말인가? 부질없이 천기를 누설할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중국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生民들의 큰 화를 야기하려 하는가?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관직을 버리고 성상께 간곡히 간언하여 이 북벌의 뜻을 그치게 한다면 천만다행이겠소!<sup>52)</sup>

50) 『仙遊洞記』, “至于二十五歲, 十人又入中國望氣, 則又如前日, 故涕天歎歸.”

51) 『仙遊洞記』, “此十人, 雖是布衣寒士, 自少至老, 心存王室, 一片丹忠, 至死不易, 時運如此, 英雄無用武地, 豈不寒心哉!”

52) 『仙遊洞記』, “何空就三台之位, 使時君興起北伐之志? 一以爲傷民丁於中國白沙之場, 一以爲費糧穀於神州溝壑之境, 空泄天氣, 又與中國構怨於東國, 以爲生民之大禍耶? 願相公棄官就位, 極諫聖上, 以止北伐之志, 幸甚幸甚!”

선유동의 인물들은 ‘三公’으로 표상된 북벌 주도세력들이, 막대한 희생은 뒷전인 채, 임금의 측근에서 오직 ‘명분’만을 내세워 북벌의 뜻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예견하는 한편, 청나라와 등을 지기라도 한다면, 그 화는 오롯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북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리한 도발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은, 언뜻 굴욕적인 事大를 인내하자는 송시열의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달랐다. 송시열의 주장은 대명의리의 수호라는 ‘명분론’으로 귀결되는 반면, 선유동 인물들은 국가와 백성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북벌 주도세력을 향한 회의적 인식은 한문단편에 누차 드러난다.<sup>53)</sup> 북벌을 표상하는 인물인 효종과 송시열을 향한 비판이 다양한 한문단편에 반복적으로 취재되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선유동기』에서와 같이 북벌 주도층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한 작품도 있다. 李玄綺(1796-1846)의 『綺里叢話』에 실린 『抱川異聞』을 주목해 볼 만하다. 여기서는 河崙(1347-1416)이 가상으로 등장하여 북벌의 成敗[吉凶]에 대한 陽坡 鄭太和(1602-1673)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하륜이 말하였다.

“그 길흉은 분명해서 알기 쉬우니 물어볼 것도 없소. 그런데 조정의 여러분들이 대의를 굳게 지키고 城을 등지고 한 번 싸워 강역에서 죽음을 맞으면 멸망해도 명성이 있을 것이고, 단절되더라도 영예가 있을 것이오. 나는 웅당 찬양해 마지 않거니와 만약 온갖 어려움을 겪고 세워진 나라의 기틀을 淸議의 재료로 삼고자 하고 尊周大義를 자기 일신을 진출하는 계단으로 삼으면서, 내심으로는 오랑캐들을 두려워하고 밖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흠치려 한즉 나는 그 정당함을 알지 못하겠소”<sup>54)</sup>

53) 정한국, 앞의 논문, 58쪽.

54) 李玄綺, 『抱川異聞』, 『綺里叢話』, “河公曰: “吉凶昭然易知, 不必動問. 然朝端諸公, 欲堅守大節, 背城一戰, 死於封壘, 則亡亦有名, 絕亦有榮. 吾當仰贊之不懈. 而

하륜은 表裏不同한 조선의 사족들을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지금의 북벌이, 고상한 논의를 통해 일신을 발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겉으로 북벌의 구호를 내걸지만, 이것은 내심 청나라를 두려워하며 아름다운 이름만 흠치려 하는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유동기』와 『포천이문』에서 비판한 북벌에 대한 사족들의 이중적 태도는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술했듯, 북벌의 불가능함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나라를 적대시했던 강고한 화이관은 사족들의 뇌리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연암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우리 조선 선비들은 세계 한 모퉁이의 구석진 땅에서 편협한 기풍을 지니고 살고 있다. 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중국 대지를 한번 밟아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는 중국 사람을 한번 보지도 못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조선 강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긴 다리의 학과 검은 깃의 까마귀가 제각기 자기 天分을 지키며 사는 격이며, 우물 안 개구리와 작은 나뭇가지 위 뱀새가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으스스하며 사는 꼴이다. 그런 탓에 예법이란 세련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초라한 생활을 두고 검소하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른바 네 부류의 백성도 겨우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요, 이용과 후생에 필요한 도구에 이르면 날이 갈수록 곤궁한 지경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학문할 줄 모르는 잘못에 있다.<sup>55)</sup>

若欲而艱難基業, 爲清議之資, 尊夏大義, 爲進身之階, 內實畏虜, 外沽美名, 則未見其可也”(임형택譯, 『『綺里叢話』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에서 인용)

55) 朴齊家 著·안대회 譯, 앞의 책, 31-32쪽. “吾東之士, 得偏氣於一隅之土. 足不蹈函夏之地, 目未見中州之人, 生老病死, 不離疆域. 則鶴長烏黑, 各守其天, 蛙井蚰田, 獨信其地. 謂禮寧野, 認陋爲儉. 所謂四民, 僅存名目, 而至於利用厚生之具, 日趨困窮. 此無他, 不知學問之過也.”

좁고 치우친 위치만큼이나 편협한 기풍을 가지고 조선의 사족들은 자신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자부심을 고수한다. 그들은 조선의 바깥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살아간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구차함을 소박하고 검소한 것이라 여긴다. 그 결과 四民의 구분은 有名無實해졌고, 이른바 ‘利用’과 ‘厚生’이라는 더 나은 학문을 향한 눈과 귀를 담은 결과로, 곤궁한 일상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요컨대, 청나라를 오랑캐에 의해 오염된 공간, 즉 夷狄化한 공간으로 상정하는 도착적 사고는 폐쇄적 중국 담론의 생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래전부터 대륙과 호흡해오던 조선에 예외적 쇄국기를 불러왔으며, 문화 폐쇄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sup>56)</sup>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소위 북학파라 불리는 일군의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었고, 특히 박제가는 ‘그들의 풍속 가운데 본국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글을 기록하며’<sup>57)</sup> 『북학의』에 자기의 생각을 담아내었다.

선유동 인물들의 마지막 주장은 북벌의 종단을 촉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위정자들이 북벌에 쏟은 열의를 生民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8)</sup> 마지막 발언에 앞서 선유동의 인물들이 이후원에게 참된 재상의 직임에 대해 언급하였듯,<sup>59)</sup> 이 말은 곧,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나라의 盛世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丹忠의 마음만은 잊지 않고자 했던 이들로 부터 나온 것이기에<sup>60)</sup> 더욱 호소력을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선유동에서 돌아온 이후원은 그간의 일을 보고한다. 이에 효종은 긴

56) 강명관, 앞의 책, 305쪽.

57) 朴齊家 著·안대회 譯, 앞의 책, 27쪽. “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 便於日用者, 筆之於書.”

58) 정한국, 앞의 논문, 54쪽.

59) 『仙遊洞記』, “今上公爲國柱石, 上以承宗廟, 下以安北民, 出入禁圍, 補過拾遺, 使主上祐爲堯舜之君, 康衢煙月作太平之治, 眞宰相之事耳.”

60) 『仙遊洞記』, “此十人, 雖是布衣寒士, 自少至老, 心存王室, 一片丹忠, 至死不易, 時運如此, 英雄無用武地, 豈不寒心哉!”

탄식을 그치지 않으면서도 북벌의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선유동의 인물들을 수소문해보지만, 여러 ‘허생’들이 그러했듯, 그들은 모두 흔적을 감춘 뒤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선유동기』의 북벌 비판은 단순히 그 불가능성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에서 출발한 북벌 담론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아가 그런 담론을 주장한 사족들이 보인 이중적 태도에 날 선 비판을 보여준다. 『선유동기』에서는 북벌의 부실한 출발점에서부터 이로 말미암아 조선이 예외적 쇠국기에 좌초되었던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다른 『허생고사』류 작품들이 북벌 주도층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그 진정성을 되묻는 방식으로 드러내었던 북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편폭을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선유동기』는 『허생고사』를 모체로 하면서, 소설적 기법을 가미한 작품이다. 이러한 전변 양상을 거치며, 서사가 일관되지 못하고 문맥이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노출되는 등 문학작품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up>61)</sup> 이뿐만 아니라, 내외의 표제를 모두 『仙遊記洞』으로 잘못 표기한 점, 작품의 곳곳에서 조악하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점, 권두와 권말에 작품과 무관한 낙서들이 어지러이 쓰여있다는 점 또한 『선유동기』라는 텍스트에 긍정적 가치를 선뜻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외면적 ‘불완전성’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문단편의 장르적 특수성을 생각해본다면, 이 이야기는

61) 정환국, 앞의 논문, 48쪽.

거듭 人口에 膾炙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고, 마침내 기록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걸모습은, 복잡한 구연화와 기록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친 『선유동기』의 이력을 압축적·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전술했듯, 이 작품의 창작연대는 선행연구에서 필사기를 토대로 추론한바 18세기 중반이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을 본다면, 시기를 달리 볼 여지 또한 있다고 생각된다. 『선유동기』에서 제기하는 북벌 비판의 핵심은 선유동의 인물들이 직접 중원을 확인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근거는 조선 자제들을 청나라로 파견하여 간첩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원에 잔존하는 반청세력과의 결탁을 주장한 『허생전』 삼대책의 세 번째 주장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선유동기』는 ‘허생’의 제안대로 한다고 한들 여전히 북벌은 불가능하다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선유동기』의 창작시기는 『허생전』보다 뒤의 시기로도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창작시기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선 후기의 북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라는 상황 속에서 『선유동기』가 갖는 위상일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이 무렵 한문단편 속 북벌에 대한 비판의 조짐은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었다. 심지어 북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존주대의라는 기치를 기본값으로 지녔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송시열로부터 시작되는 노론 계열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었다.<sup>6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선유동기』는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 비판의 강도는 강력해지고, 확신의 범위는 지식인계층을 넘어 사회 저층까지 더욱 넓어진 것이다. 딱 다사다난했던 이력을 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선유동기』는 이 작품은 한문단편과 한문소설에

---

62) 줄고, 앞의 논문, 74쪽.

서 동원 가능한 장치들을 실험적으로 구사한 산물인 한편, 당시의 사회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기 시작한 복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가장 깊은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漢書』

『顯宗實錄』

『肅宗實錄』

未詳, 『仙遊洞記』,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귀중본.

閔鼎重, 『老峯集』: 『韓國文集叢刊』a129.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a252.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a116.

林泳, 『滄溪集』: 『韓國文集叢刊』a159.

趙憲, 『重峰集』: 『韓國文集叢刊』a054.

韓元震, 『南塘集』: 『韓國文集叢刊』a202.

黃景源, 『江漢集』: 『韓國文集叢刊』a225.

강명관,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2017.

南夏正 著·원재린 譯, 『桐巢漫錄』, 혜안, 2017.

朴齊家 著·안대회 譯,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朱熹 著·朱杰人 外編, 『朱子全書』 24, 上海古籍出版社, 2002.

이강석, 『복별 담론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9.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대동문화연구원, 2011, 7-52 쪽.

- 우인수,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25-48쪽.
- 원재린, 「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桐巢漫錄』과 『朝野信筆』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3, 한국사상사학회, 2016, 203-229쪽.
- 임형택 譯, 「『綺里叢話』 소개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281-324쪽.
-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회, 2006, 37-64쪽.
- 황인덕, 「임란기 전승업과 師友들의 피난지 모색활동과 학연성」, 『인문학연구』 104,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289-315쪽.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Criticism Stratification of Plan for Northern  
Subjugation of 『Seon-yu-dong-gi』

Lee, Kang-Seok\*

『Seon-yu-dong-gi』 of unknown author is motifing 『stories about Heo-saeng』, and contains sharp criticism of the northern subjugation. This work was noted as a testament to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tyle of narrati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s a demonstration of the trend of the northern subjugation. The preceding study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the work's literary history and the status of the times. However, the study did not carefully examine the message of the work itself, namely the strong criticism of the northern subjugation and its level.

The northern subjugation was based from the outset on poor grounds and poor judgment of the times. The discourse, which was reduced to political means by its vulnerability, has helped establish the strong viewpoint of Hwa-yi of Joseon's ruling class by establishing itself as an irrefutable discussion. 『Seon-yu-dong-gi』 reveals this falsehood in various ways through comments by figure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and planning of the northern subjugation. Since it was an unacceptable and dangerous cause in a Joseon's

---

\* Graduate Student, the Doctor's course in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ruling class, it is covered up by the establishment of a space called 'Seon-yu-dong' that crosses between 現實(reality) and 仙界(taoist hermit's world). This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ritical view of the northern subjugation in other works of 『stories about Heo-saeng』. In this regard, 『Seon-yu-dong-gi』 represents the deepest cross-section of the critical perception of the northern subjugation, which began to infiltrate society extensively at that time.

Key Words : 『Seon-yu-dong-gi』, 『stories about Heo-saeng』,  
Northern subjugation, Seon-yu-dong, the viewpoint of  
Hwa-yi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2일  
■ 게재확정 : 2020년 4월 17일